“21세기, 가장 섹시한 직업”

(역대상 15:1~29)

1.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2.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3.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4.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21세기, 가장 섹시한 직업”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21세기, 가장 섹시한 직업’

KBS TV방송에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말해주듯이 미래를 향해 가는 준비 자세에 대해서 주로 강연을 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11월에 들어서 방영된 강연의 제목이 ‘21세기, 가장 섹시한 직업’이었습니다.

내용은 지금까지 1차 2차 3차에 걸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이제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합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 주도했고, 2차에는 전기 동력에 기반을 둔 대량생산이 주도했고 3차에는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가 혁명을 주도했습니다. 이 산업혁명의 공통점은 원료를 투입해서 제품을 만드는 하드웨어 혁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데이터에 의해서 주도되는 소프트웨어 차원의 산업혁명이라는 것인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21세기의 원유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데이터의 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숫자 단위에는 억, 조, 경과 같은 단위가 있는데 데이터의 단위를 세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단위인 해, 자, 양, 구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어떻게 우리 삶에 유용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뽑아내어 이용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여기에 새로이 나타난 직업이 있습니다.

그 많은 데이터 중에서 패턴을 뽑아내고 의미와 가치가 인정되는 것들을 가려내서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들을 바로 데이터 과학자로 부른다고 합니다.

이 직업이 세상에 등장한 지가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첨단 기업이 몰려있

는 실리콘밸리 내에서 이 직업이 처음 생겨났을 때에 연봉이 수만 달러였다고 하는데 10년 세월이 지나자 지금 구글이나 애플 같은 곳의 IT기업에서 이들의 연봉은 수십만 달러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매력적인 의미에서 이들은 21세기의 가장 섹시한 직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의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섹시한 직업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이 직업에 비하면 그다지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지나서 10차가 되든 100차가 되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떤 시대적 변화가 있더라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직업이 가장 섹시한 직업일 것인데, 지금으로부터 3천 년 전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은 누구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희소성이 있어야 섹시한 직업 아니냐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직업만 가지면 만사 오케이인데 가지려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법궤 운반의 1차 시도가 실패하고 2차 시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해주신 규정대로 레위인들이 법궤의 고리에 채를 끼워서 어깨에 메어 옮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 중에서 성가대를 모집하고 악기를 다룰 악단들을 구성합니다.
이번에도 온 이스라엘에서 모인 수만 명의 인파가 지켜보는 가운데 레위인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성가대와 악단들이 행렬에 가담하여 오벧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운반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레위인들의 명단을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에스라의 신학은 명단 신학입니다. 마치 구약성경의 대표되는 조직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윗은 이 법궤의 이동을 단순히 행정적이나 정치적 사건이 아닌 축제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였는데 이러한 점이 우리의 주목을 끄는 부분인데 법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는 것이 왜 그토록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왕복을 벗고 제사장들의 일상복인 에봇을 입고 행렬에 가담해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29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라고 합니다. 이 구절로부터 오늘 본문 전체를 관전할 때에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역사를 꿰뚫으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직업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갈은 사울 왕의 딸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왕복을 벗고 법궤가 운반되는 행렬에 끼어서 춤을 추는 모습을 왕궁에서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1절에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라고 하는데 이 왕궁은 앞서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여기서 ‘지었다’라는 말의 원어는 ‘보수하고 수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법궤가 임시로 안치 될 곳을 준비했으며, 자신도 집무를 보기 위해 소박하게나마 왕궁을 건설했다가, 나중에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 이 소박한 왕궁을 크고 화려하게 보수 수리하여 거처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이 왕궁에서 미갈이 내려다보니 왕이 왕복을 벗고 온 국민뿐만 아니라 계집종들조차 보는 가운데 체통도 없이 춤을 추고 있자 업신여겼는데 이것이 뜻하는바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법궤 앞에서 이렇게 한 것은 그가 본래 흥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예루살렘으로 오는 법궤가 다윗으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든 것입니다. 미갈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업신여길 수밖에 없었고 법궤의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다윗이 입었던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화려한 에봇이 아니라 앞치마 같은 것으로서 어깨가 없고 끈으로 된 평상복으로서의 에봇을 입고 춤을 추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평생 법궤를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옷을 입기 위해서 다윗은 왕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직위를 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레위 사람과 똑같이 법궤의 의미를 생활화하는 것을 직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다윗이 마치 이들처럼 행동한 것은 자신의 직업을 평생 법궤를 섬기는 자로 여기고 있음을 온 백성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백성들도 자신처럼 법궤를 섬기기를 평생의 직업으로 삼을 것을 공포하는 것이고 선언하는 것이고 초청하는 것이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레위인의 존재 역할은 출애굽 때의 유월절 사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갈 때에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만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잘나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어린양의 피 값으로(이스라엘 각 가정의 장자를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각 가정의 장자를 취하는 대신에 레위인을 대표로 취하셔서 평생을 성전에 두시며 다른 기업을 갖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장자는 가문의 정체성을 대대로 계승하며 물려주는 그릇과 같은 존재였기에, 이스라엘 전체가 레위인과 같은 마음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신이 완전히 망각되었다가 다윗이 왕이 되면서 온 백성에게 직업을 주는 행사를 행한 것이 법궤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왕복을 벗고 제사장의 평상복인 에봇을 입음으로서 온 백성에게 법궤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왕으로서 왕의 직분과 책임과 의무를 행해야 하는데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

로 두지 않고 법궤를 섬기는 자로 규정한 것입니다.
법궤를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궤의 모양을 봅니다. 두 그룹이 날개를 펼쳐서 법궤를 덮고 있습니다. 법궤는 마음의 부분을 그려 낸 것입니다. 그 안에는 말씀의 돌판이 들어 있듯이 마음에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셔 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음으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 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죄적 체질상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의 가치들을 붙잡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두 그룹이 날개로 보호하고 있는 마음의 부분에 이름을 붙잡는 것은 그 대상이 내게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돈을 붙잡으면 돈이 만족과 기쁨을 준다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만이 만족과 기쁨을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궤를 섬기는 것은 레위인들 중에서 성가대가 동원되고 악단들이 동원되고 그 앞에서 다윗이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춤을 추는 것과 같은 기쁨을 동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법궤 섬기는 것을 평생 직업으로 삼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왕위는 어떻게 수행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마음을 써서 해야 될 일을 마음의 영역에 국한시켜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내 직업이고 내 마음을 직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법궤의 형상을 보면서 내 마음의 가장 깊이 있고 거룩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생각한 직장입니다. 직업 활동의 영역이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적 체질로 인해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는 마음을 돌이켜 매일매일 법궤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법궤의 모습을 보고 끊임없이 번제단에서 죽으며, 다시 태어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으로 만족하려는 것이 바로 선민의 직장 생활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무역상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상사에게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고, 입사동기생들보다 먼저 승진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족과 기쁨의 근거로 삼는 공간 안에서 선민은 법궤를 섬깁니다.
법궤의 모양을 청진기 삼아서 자신의 마음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동료들과 같이 승진을 하거나 성과를 올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그 모습을 번제단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내어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야 말로 선민의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책임과 직무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직장인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직무가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기쁘고 행복하면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육체를 이용하셔서 일하십니다. 분명히 생각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이용하시는데, 그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회사에서 승진을 하거나 상사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하나님으로 기쁜 상태를 유지하면 그 직장에서 하게 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승진을 기뻐하고 월급이 오르는 것을 기뻐하고 상사의 인정이 기쁘다면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을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가치들이 전혀 내게 기쁨이 되지 않고 만족의 이유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상태에서 하는 생각과 행동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법궤의 의미와 성전의 의미가 완성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생활화가 우리의 직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선민 모두가 가져야 될 직업은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될 때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합니다. 그러한 나를 십자가에서 죽임으로서 우리의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한 시간을 기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회적 모임이든 단체이든 기도할 공간이 없다면 화장실에 가서라도 이러한 기도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발전하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당당하게 기도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단체나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가지고 그것으로 기뻐하려고 하지만, 내 직업은 그러한 자들 속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기 위한 십자가 생활화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그로부터 시작되는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되는 것인데 다윗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21세기에 가장 섹시한 직업은 데이터 과학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숫자의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쏟아지더라도 그것은 전지하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많은 정보 중에서 어떤 데이터가 내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과학자의 확신도 미신일 뿐입니다. 과학은 그 다음 이론이 나타날 때까지만 과학적 이론이 유효할 뿐 과학법칙에 근거할 때 미신에 불과합니다. 어떤 데이터 과학자가 뽑아낸 어떤 데이터 군에 입각한 어떤 결정도 절대적 옳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단체

나 모임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법궤를 섬기는 것이 곧 우리의 직업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미갈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생각과 몸을 장갑 삼으셔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아름다운 국가를 건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역사를 꿰뚫는 가장 섹시한 직업은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어떤 직위와 직종에 종사하든 그 현장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은총 중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